

설 귀경길... 호남고속도로는 '혼잡'



전주시 완산구 상공에서 바라본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인근 상행선에 귀경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주發 드론축구 세계화 한걸음 더

전주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의 전국대회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레저스포츠 산업전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8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SPOEX)'의 부대 행사로 오는 24일 국내 드론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18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3번째를 맞는 이번 전국드론축구대회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13개 지부 산하 16개 팀, 총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국 최강자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된다.
이날 행사장에 설치된 드론축구 이

24일 SPOEX컵 대회 200여명 선수단 참가 대표 ICT 레저 각인 기대

동식 경기장에서는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되며 VIP 시축 및 시연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시범경기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 등은 SPOEX 행사 기간(22일~25일)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드론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도 대회의 흥행을 위해 이번 전국드론축구대회에 직접 참석, 대회사 낭독과 함께 대회 본 경

기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해외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등 세계 각지에서 드론축구단이 창단, 경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현재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국드론축구대회를 향후 국제드론축구대회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5년에는 대망의 드론축구 월드컵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경기가 펼쳐지는 이번 국제 레저스포츠 산업전에 헬스과 피트니스, 캠핑카 등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업체의 장비와 용품들이 전시, 다양한 레저스포츠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만큼 드론축구 세계화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축구는 드론의 활용도를 레저스포츠까지 넓히고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서울 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이 드론축구의 저변과 인기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 앞에서 생동감 있는 경기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드론축구가 대한민국 대표 ICT 레저스포츠임을 각인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청년취업 프로젝트'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다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향후 청년취업 프로젝트의 참여 연령을 기존 만19~29세에서 만18세~34세까지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등 더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청년취업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심

전주형 '청년취업 프로젝트' 확대

참여 연령 만34세까지 ↑ 기준중위소득 100%로 상향

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전주시의 대표적 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된 1기 청년취업 프로젝트에는 총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까지 매월 50만원씩 두 차례의 청년수당을 지급받았고 개인별 11종의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을 진행했다. 총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집단 상담에서는 '사회적 기술',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며 치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은 청년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를 한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는 활동수당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청년취업에 참여한 고모(26)씨는

"처음에는 집단 상담이 낯설고 3일씩이나 시간을 내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성격도 아픈도 다 다른 낯선 청년들이 모여 서로 공감과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부정적이고 힘든 현실 속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그 3일간이 미래를 다시 준비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는 향후 청년취업 참여자들의 사업 참여 전후에 대한 심리적 치유와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청년프로젝트 설문조사'를 실시,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완전 폐지 | 330개교, 교육부와 합의 이행계획 제출

사립대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기 합의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사립대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8월 전면

77만3000원 미만 4년제
올해부터 실비용외 4년간
매년 20%씩 감축
.....
평균 77만3000원 이상
4년제, 실비용외 2022년까지
매년 16%씩 줄이기로
폐지를 확정했고 사립대학은 같은해 11월, 전문대는 올 1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각 대학의 이행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이다.
사립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한다.
정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여 해당 등록금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후에는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박차	3면	- 마을세우시 무료상담 5만건 돌파
4면	- 설 연휴 도내 행사사건 소폭 감소	12면	- 여자컬링, 중국 처내고 3연승

사람과도시
함께성장
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